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5일 월요일 음 7월 5일 (12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5-26°C, 낮 최고 기온은 31-32°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other weather condition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Rows show UV index and wind speed forecasts.

월드뉴스

美총격범 검거, “히스패닉이 텍사스 장악”

反이민정서 담긴 선언문 올려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46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20대 백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찍힌 CCTV 화면.

경찰은 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와 SNS 활동내용 등을 근거로 이번 총격이 ‘중요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행이었다. 그의 범행 동기를 놓고 경찰과 현지 언론은 꼭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길로이 ‘마늘 축제’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살해한 산티노 윌리엄 리건(19)과 마찬가지로 백인우월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크루시어스는 선언문에서 “히스패닉이 내가 사랑하는 텍사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장악할 것이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고 NYT는 전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1)를 체포했다. 백인 남성이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텍사스주 엘패소 동부의 쇼퍼단지 내 월마트에 귀마개를 끼고 들어가 소총을 난사, 20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했다. NYT가 이번 사건을 ‘학살’(Massacre)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 전역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바짝 얼어붙은 제주 주택경기가 풀릴 기미가 없다고 아우성인 건설업계의 반대편에선 4-5년 사이 전국적으로 화젯거리가 될만큼 폭등한 집값에 서러움만 커진 서민들이 있다. 도내 미분양은 30세대 이상으로 분양승인을 받아 통계에 잡히는 것만 2년 넘게 1000호를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쓰고 있고, 제주시에 집중됐던 물량이 읍면에서는 서귀포시로도 번졌다.

제주 집값 내렸다는데 “체감은 좀 되시나요?”

도통 체감이 되질 않는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올 7월 기준 도내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3억122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서며 전국평균가격을 앞지르기 시작한 올 1월(3억1401만원)이나 가장 가격이 높았던 5월(3억1427만원)과 비교하면 불과 200만원 안팎이 내렸을 뿐이다.

상황이 이리니 집값은 서민들 입장에선 미분양 증가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판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가격이 내렸다는 것도 꼭짓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말이다. 집값이 다시 될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중으로 조만간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년전 이상과열됐던 주택가격이 최근 미미한 조정을 받고 있는 제주의 경우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재건축돼 조합원 몫을 제외한 일반분양형 아파트 가격은 주변시세를 감안하고, 신축 주택이라는 메리트가 보태져 책정될 게 뻔하다.

열린마당

한·일 무역 분쟁, 종자 국산화 계기로 삼아야 알고 쓰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성돈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농자재 구매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 안보 및 종자 국산화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종자 산업은 우리 농업 발전의 열쇠이며 농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열쇠이다.



백난아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호하는 실정이다. 종자 국산화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농업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임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면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지켜보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분들은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농업을 보면 감귤산업을 위시로 월동채소인 무,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이 주요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홍보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다 보면 “있는지도 몰랐다.”,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다. 둘째,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인 금융기관과 지자체, 법원 등의 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률이 적다.

Advertisement for '페르카칼슘비료' (Perka Calcium Fertilizer)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detailed benefits for crop health and yield.

Advertisement for '하하농법' (Haha Farming Method) for crops like radish and eggplant, highlighting i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yeongnam Gyeongju Gyeongju Gyeongju.